

##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제주어 육성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김세중\*\*

### 국문 요약

제주도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정체성을 잃은 발전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제주어 육성은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현재 제주어는 급격히 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를 막거나 늦추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는 2010년 제주어를 위기에 처한 언어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규정하였다. 이는 제주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제주어 부활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의미한다. 제주어를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제주어를 보존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그들의 말을 녹음하고 교육 현장과 연계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주어를 가르쳐야 한다. 제주어를 자유롭게 들어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제주어마을을 건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주어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제주어능력

---

\* 이 논문은 '2011년 제주학회 제35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를 우대함으로써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방송에서 제주어를 더욱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 기초적인 제주어를 보여주는 상품을 개발하여 제주어를 알리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주제어: 제주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위기에 처한 언어

### I.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과 제주어 육성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제정,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제주도의 개발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숙원이기 때문만이 아니며 국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자유항, 국제무역의 중계지대로 만들 고자 하는 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1960년대부터 싹틔 음을 알 수 있다.<sup>1)</sup> 그 후 몇 번의 계획 입안이 있었고 1998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할 것을 지시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현재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

---

1) 1964년 7월 13일 경향신문 3면 ‘탐라의 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제적관광지, 자유항, 중계무역의 가공공장지대, 수산 개발의 중심지, 축산업의 낙원. 이것이 제주도민들이 한결같이 품고 있는 꿈이다.”

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등 6개 핵심프로젝트와 중문관광단지 확충, 쇼핑아웃렛 개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5개 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들 사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때 제주도는 환골탈태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주도가 동북아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6개의 핵심프로젝트, 5개의 전략프로젝트가 충실히 이행된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제주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상실해 버린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는 점이다. 제주도는 자연풍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와 풍속을 전승해 오고 있는데 그 가치는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제주의 고유한 문화는 퇴색하거나 소멸하고 있는 중인데 이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풍속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언어이다. 제주어에는 제주민의 역사, 민속, 정서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다. 제주민의 언어가 표준어에 동화되어 제주어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2)

---

2) 이 점에 관해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이 펴낸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어와 제주방언 보존 방안 연구」에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잘 제시되어 있다. “방언이 없는 제주도 문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제주방언 없이 제주문화를 바르게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제주방언을 지키고 보존해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지만 정체성을 잃은 발전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제주어 육성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과 제주어 보전, 육성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당연한 목표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위해 제주어의 육성이 왜 필요하며 어떤 방안을 통해 제주어를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필자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필자의 관심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보다는 제주어의 육성에 놓여 있으며 주로 제주어의 보존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 II. 제주어의 현 상황과 제주어 육성 정책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심각하게 위기에 놓인 언어'로 지정하였다. 유네스코는 위기에 처한 언어(endangered languages)를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제주어가 4단계인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라고 분류한 것이다.

1단계: 취약한 언어(vulnerable language)

2단계: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definitely endangered language)

3단계: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severely endangered language)

4단계: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5단계: 소멸한 언어(extinct language)<sup>3)</sup>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지정하기까

---

3) 통계 전문 사이트인 [chartsbin.com](http://chartsbin.com)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취약한 언어는 725개,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는 849개,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는 613개,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는 630개로 집계되어 있다.

지에는 유네스코 언어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 사이의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다.<sup>4)</sup> 유네스코의 제주어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제주어가 소멸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제주어는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1993년 제주대학교의 동아리인 ‘제주도문제연구회’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 800명을 대상으로 제주어 사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에서는 아동의 4.6%만이, 청소년의 8%만이 제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농촌에서는 각각 26.5%, 25.5%가 제주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동아일보, 1993. 12.6). 지금은 아마 그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국어원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외곽에 사는 312명을 대상으로 제주 토착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어휘 176개 중에서 140개가 사용자가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젊은 층의 80% 이상이 질문지 가형(86개)에서 61개 어휘, 질문지 나형(90개)에서 41개 어휘를 ‘이해못함’이나 ‘모름’으로 답해 제주어 어휘의 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도 생태 환경의 일부로 보아 제주어의 생태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인데 제주어의 어휘가 제대로 전승이 되고 있지 않음이 실증된 것이다. 제주에서 제주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도민이 제주

---

4) 유네스코 언어 전문가로는 독일 쾰른대학교의 마티아스 브렌칭거 교수(Matthias Brenzinger)가 관여하였고 한국의 전문가로는 제주대학교 강영봉 교수가 공헌하였다. 마티아스 브렌칭거 교수는 유네스코 언어 전문가로서 아프리카언어에 정통한데 제주어 조사를 위해 2010년 3월 제주를 찾은 바 있고 이후 강영봉 교수의 도움으로 제주어를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재하는 데 기여했다(강영봉, 2011; 김순자, 2011).

도민 56만 명 중에서 13%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렇게 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났다. 1996년 국립국어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이 협약을 맺고 지역어를 살리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고 2007년을 제주민속의 해로 선포하고 학술행사를 비롯하여 방언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제주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례 초안을 만들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11년 4월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주어 보존 육성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2011년 3월 이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어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중앙 정부이든 지방 정부이든 정부의 정책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바, 제주어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sup>5)</sup>은 그 의미가 크다. 이를 발판으로 실제 조례에 명시된 각종 정책을 실제로 입안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제주도와 의회에서는 제주어를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 배정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일반 시민이 늘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 확보와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

5) 2007년 9월 27일 제정되었고 2011년 4월 6일 일부 개정되었다.

### III. 제주어가 위기에 놓인 원인과 제주어 부활을 위한 방안

#### 1. 제주어가 위기에 놓인 원인

제주어가 오늘날 소멸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수립 후 표준어 정책의 강력한 시행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신문, 방송의 보급과 학교 교육은 표준어의 전국적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어사전이 편찬, 보급되면서 표준어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행정, 사법, 언론,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표준어가 사용되면서 지방 방언의 소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어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났다. 즉 제주어만이 소멸 위기에 놓인 것은 아니며 전국의 여러 방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sup>6)</sup>

그러나 제주만의 독특한 현상도 없지 않다. 제주어가 워낙 다른 지방 사투리보다 개성이 강하고 표준어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주민들의 표준어 습득 욕구는 타지역보다 더 강했고 제주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타지역인들보다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든지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화가 진전되었다든지,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2, 3차 산업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제주어의

---

6) 방언의 소멸은 어휘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대로 음운, 특히 억양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어의 경우는 특이하다. 어휘의 소멸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억양을 비롯한 음운적 특징도 젊은 세대에서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는 억양은 대체로 유지하되 어휘만큼은 표준어 어휘를 쓰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제주 지역에서는 어휘는 물론, 음운적 특징까지 표준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약화로 연결되었다. 대가족 제도가 변함 없이 유지되었다면 제주어는 중단 없이 전승되었을 것이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라나는 세대가 제주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위축되었다.

제주어를 50년이나 100년 전의 상태처럼 부활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소멸되어 가는 속도를 늦추고 한정된 영역에서 만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제주어를 공공 부문에서 사용케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도 아닐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행정이나 언론, 교육에서는 표준어 사용이 필요하다. 문제는 생활 언어에서도 제주어의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농어촌의 노년층 사이에서는 생활 언어로서 쓰이고 있겠지만 젊은이들과 자라나는 세대는 제주어를 생활에서 쓰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생활에서 제주어를 쓰도록 유인할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어에 대한 제주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어 사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제주어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인식 전환은 제주인들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와 언어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는 범국민적인 태도가 뒷받침될 때 제주인들이 마음 놓고 제주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표준어 선호 의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이 마당에 제주어에 대해서만 열린 마음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외부의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제주인 스스로 제주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 2. 제주어 부활을 위한 방안

제주어를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주어를 생생하게 지니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본다. 대가족제도가 거의 해체된 마당에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제주어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주어를 훌륭히 구사하는 어르신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어르신들이 제주어로 설화, 민담을 이야기한 것을 최대한 채록해 두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사를 녹음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녹음이 된 자료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인 인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시간을 두고 차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더 풍부한 제주어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다.7)

단순히 말을 녹음해서 보존하는 일 외에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에는 경로당이 387개소 있고, 이들 경로당을 인근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시켜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도에 제주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제주어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재량 활동 시간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초청해 보조 교

---

7) 이 일은 꼭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오사카를 비롯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 출신 인사들을 찾아가서 녹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사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학교의 교사들 중에는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어에 능하지 않은 교사들이 재량 활동 시간에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제작된 제주어 교육 자료를 어르신들이 보조 교사로 나와서 교육에 활용한다면 교육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숲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은 직업이 창출되어 은퇴한 노인들이 활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제주어에 대해서도 해설사가 필요할 수 있다. 워낙 제주만의 토속 어휘가 많기 때문에 각 낱말의 뜻과 유래를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일에도 제주어에 해박한 어르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007년 제정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앞으로 제주어연구소가 설립될 터이지만 제주어연구소는 제주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어의 음운, 억양, 어휘, 문법 등에 관한 조사,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연구에만 그칠 경우 제주어의 회복과 부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된다. 제주어연구소는 제주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못지않게 제주어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 기능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제주어를 알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제주어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제주어 체험과 학습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만일 제주어연구소가 그 명칭 때문에 연구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면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제주어의 보급, 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주도에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등 몇 개의 민속 관련 박물관이 있지만 제주어를 전문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박물관은 없어 보인다. 제주박물관협의회에 34개의 박물관이 가입되어 있지만 제주의 언어와 관련된 박물관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제주도에도 제주어에 관한 박

물관이 하나쯤 있어야 하리라 본다. 아니면 아예 제주어 체험을 할 수 있는 제주어마을을 건립하는 것도 제주어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어박물관이 되든 제주어마을이 되든, 그곳에 가면 제주어를 원 없이 실컷 들을 수 있고 써볼 수 있는 장소가 생긴다면 제주어 부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에 '영어 교육 도시' 건설이 들어 있는데 정작 제주도에 제주어 교육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면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 교육에서 제주어 학습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2007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초중고 학교급별로 각 17차시의 제주어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배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며 매우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에 사용되고 있을 뿐인 줄 안다. 정식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봄직하다. 학교 교육에서 제주어 교육을 포함시키려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제주어를 제대로 가르칠 교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08년 1월 창립된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가 2010년 제1회 제주어선생 육성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제주어보전회가 제주어선생을 육성하는 일도 계속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정식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제주어 교사 양성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제주어능력시험' 같은 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2004년 8월부터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밖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의 한국어능력시험은 그동안 한국어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회 분위기에 큰 영

향을 주어 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제주어능력시험을 실시하여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면 제주어에 대한 국민과 제주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제주어능력시험 성적 우수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제주어능력시험 성적 우수자는 그밖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초중고 교사의 채용이나 승진시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고 관광안내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제주어능력시험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라 하면 표준어와 달리 어떤 지역의 표준 방언을 설정할 수는 없고 그 지역 안에서 다시 세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에 대해서만 시험이 가능하고 방언에 대해서는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한데 일견 타당하다. 제주어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다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이므로 제주어능력시험의 도입 자체를 막을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인 특징이 훨씬 크므로 공통인 특징에 대해서만 능력을 측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언론 매체에서 제주어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주문화방송이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이라는 짧은 코너를 방송해 온 지도 여러 해가 되었고 지금도 상당한 고정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밖에도 몇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거나 방영중이지만 1회에 그쳤거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매우 소략해서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 제주어를 알

리는 방송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간단한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도 생각해볼 수 있고 나아가 제주어가 사용되는 라디오 연속극 같은 것도 제작, 방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방송환경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특정 케이블 채널을 통째로 제주어로 하는 방송으로 하는 것도 추진해볼만하다고 본다.

제주어 보급을 위해 제주어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 예로 손수건 같은 것에 제주도 기초 어휘와 그에 대응하는 표준어나 외국어를 보여 줌으로써 제주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 외국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어 홍보를 위해서 표준어 표현에 대응하는 제주어 표현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앱 개발도 시도해봄직하다. 또한 관광지 안내판을 제주어로 디자인하고 제주 관광 안내를 제주어로 하면서 표준어, 외국어로 통역을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제주어 부활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활된 언어의 사례를 조사해 그 언어의 사용 지역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많은 언어가 사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거꾸로 죽어가던 언어가 부활한 사례도 드물지만 없지 않다. 이스라엘인들의 히브리어도 구어로는 쓰이지 않던 것이 부활해서 이제는 700만 명이 사용하는 국가 공용어로 살아났고, 영국의 서남쪽 끝의 콘월 지역에서 쓰이는 코니시어는 20세기에 들어 거의 사멸되었다가 2008년 표기법을 확정하면서 부활되는 조짐을 보였고 유네스코도 ‘소멸한 언어’에서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를 바꾸었다고 한다.<sup>8)</sup> 스페인 북쪽 프랑스와의 국경 지역에서 쓰이

---

8) 1904년 헨리 제머가 ‘코니시어’를 출간한 이래 코니시어 부활 움직임이 시작되어 현재는 여러 학교에서 코니시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는 Occitan Gascon어, 스페인 서북쪽 지방에서 쓰이는 Leon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사이의 바다 위 맨 섬에서 쓰이는 Manx어, 하와이의 니이하우섬의 하와이어 등도 극적인 부활을 이루었다. 이런 부활을 경험한 언어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되면서 동북아의 중심에 가까이 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핵심프로젝트와 전략프로젝트가 하나씩 실현되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될 터인데 제주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주어에는 제주의 민속과 문화 그리고 우리 국어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주어를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제주어를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제주어 전승을 위해서 제주어를 보존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말을 대량 녹음하는 일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주어를 가르치는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제주어를 자유롭게 들어볼 수 있고 써볼 수 있는 제주어마을 또는 제주어박물관을 설립한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제주어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의 창의적 재

량 활동 시간으로는 부족하므로 정식 교과 과정에 제주어 학습을 포함한다.

넷째, 제주어능력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채용 시험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언론매체가 제주어를 더욱 활발히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제주어를 사용하거나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예 제주어만 사용하는 케이블 채널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불행하게도 제주어는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부활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아직 제주어를 사용하는 수만 명의 제주인들이 있으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제주어 부활은 요원한 꿈만은 아니다. 제주도민이 힘을 모으고 국민적으로 밀어줄 때에 우리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제주어는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영봉, 2011,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생각한다」, 『삶과문화』 2011(봄), 20-25.

김순자, 2011, 「유네스코와 제주어」, 『삶과문화』 2011(봄), 26-31.

제주발전연구원,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어와 제주방언 보존 방안 연구』.

경향신문, 「탐라의 꿈」, 1964년 7월 13일자.

동아일보, 「집안서 사투리사용 제주청소년 8%뿐」, 1993년 12월 6일자.



Abstract

An Analysis and some Suggestions of the Policy  
of the Jeju Dialect Promotion for the  
Development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Kim, Se-Jung \*

The construc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hould be successful, and it must accompany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Jeju dialect because development with the loss of identity is meaningless. The Jeju dialect is facing the serious crisis and the efforts to survive should promptly be made. In 2010 UNESCO added the Jeju dialect to its Atlas of the endangered languages as a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 and it means that we should try to make an effort to revive the Jeju dialect.

I suggest some plans to revitalize the Jeju dialect as such. Government should collect the speech of senior people well-versed in the Jeju dialect and use them as assistant teachers in the Jeju dialect education. Jeju dialect village where people can freely hear and speak the dialect should be constructed in the Jeju province. The Jeju dialect should be included in the regular curriculum of schools. Jeju dialect proficiency test has to be implemented and the outstanding persons should get benefit from it. More programs in television and radio dealing with the Jeju dialect should be made and various

---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ightseeing goods utilizing the Jeju dialect needs to be developed.

**Key Words:** the Jeju dialec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endangered language

교신: 김세중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E-mail: kimsej@korea.kr)

논문투고일 2011. 7. 25.

수정완료일 2011. 8. 25.

게재확정일 2011. 8. 26.